

“日 과거사 청산”... 그 뜻 이어가겠습니다



23일 광주시청 시민의 숲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독립운동가 후손 고(故) 최현열(81)씨 민주사회장 노제가 열리고 있다. 고인은 지난 12일 광복 70주년을 맞아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집회에서 분신, 입원 치료를 받아오다 지난 21일 숨을 거뒀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일본대사관 분신 고 최현열씨 영결식...광주 ‘평화의 소녀상’ 앞 노제

“올바른 역사 위해 싸워달라는 고인의 고귀한 뜻 이어가겠습니다.”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서 분신한 최현열(81)씨 영결식이 23일 고향인 광주에서 열렸다. 영결식 참석자들은 친일 잔재 청산과 일본의 과거사 청산을 외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인의 고귀한 정신을 기렸다. ‘일본대사관 앞 분신 독립운동가 후손 최현열 선생 시민사회 광주전남 공동대

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광주 A장례식장에서 영결식을 갖고 광주시청 ‘평화의 소녀상’ 앞으로 옮겨 노제를 지냈다. 윤장현 광주시장, 이낙연 전남도지사, 강기정·장병완·천정배 의원을 비롯, 시민, 유가족 등이 참석했다. 윤 시장은 추모사에서 “고인의 유지(遺志)를 받들어 민족의 한을 풀고 역사를 바로잡는 데 노력하겠다”고 했고 이 지사도

“역사의 진실을 지키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례위원장인 현지 스님은 “바른 역사를 위해 싸울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셨다. 송고한 정신을 담고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고인의 조카인 조호권 전 광주시의회의장은 유족들을 대표해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 친일 잔재 청산이 고인

의 뜻을 기리는 길”이라고 추모사를 했다. 고인은 광주시 북구 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역(5·18 구묘역)에 안장됐다. 최씨는 지난 12일 분신, 전신에 화상을 입고 서울 한강성심병원에 치료를 받다가 9일 만인 지난 21일 숨을 거뒀다. 최씨는 3년 전부터 민간단체인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후원회원으로 활동하며 매일 한두 차례씩 정대협 수요시위에 참석하기 위해 상경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백희준기자 bhj@

한빛원전 방폐물 운반 시범 운항 무산

원자력환경공단, 영광군에 참여요청...어민들 반발로 철회

방사성 폐기물(방폐물) 운반과 처리를 맡고 있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한빛원전 방폐물 해상 이송을 위한 여건 조성에 나섰으나 주민 반발에 부딪혔다. 올 10월로 예정된 한빛원전 방폐물 해상 운반을 앞두고 시범 운항 계획을 세웠다가 주민 반발로 철회한 것이다. 23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 따르면 공단 측은 한빛원전 방폐물 해상운반을 위한 시범 운항을 오는 28일로 예정하고 전남도, 영광군, 영광군 수협대책위 등 유관기관에 참여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10월로 예정된 영광~경주(방사성 폐기물처리장)간 첫 해상 운반을 앞두고 한빛원전에서 영해선까지 방폐물 운반 전용선박(정장누리호·2600t)을 이용한 시범 운항 참여 여부를 묻은 것이다. 공단 측은 시범 운항 과정에서 구간 우려를 표

시했던 어민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에게 방폐물 운반 전용선박의 특수성과 해상 운반의 안전성을 적극 설명하고 어민 동의 이끌어 낸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공단 측은 지난 20일 시범 운항 계획을 유관기관에 통보한 지 불과 5시간여 만에 어민 반발 등의 이유로 이를 거둬들였다. 영광지역 어민들은 ▲안전성 검토 미흡 ▲조업 손실 ▲선박 침몰시 어민피해 및 수습대책 미흡 등을 이유로 해상 운송을 거부하고 있다. 공단 측은 “상급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8일로 계획했던 시범 운항을 중단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주민 동의를 최대한 이끌어낸 뒤 추진하라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영광=이종윤기자 jylee@kwangju.co.kr

허재호 전 대주 회장, 사실상 무혐의 처분

뉴질랜드 출국

허재호(73)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무혐의’로 종결됐다. 허 전 회장은 다시 뉴질랜드로 출국했다. 23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허 전 회장과 관련, 제기됐던 재산은닉·횡령 등과 관련한 고소·고발, 그를 계열사 운영과정에서 자금 몰아주기(배임)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벌여 허 전 회장에 대한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검찰은 또 서울지방국세청의 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참고인 중지는 해당 사건 참고인 등의 소재가 불명확해 수사할 수 없으면 소재가 파악될 때까지 수사를 중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김지율기자 dok2000@

서울국세청은 앞서 차명 주식 매각 과정에서 허 전 회장이 증여세와 양도세 등 63억원을 탈루했다고 보고 이 가운데 고의성이 있어 보이는 6억8000만원과 관련해 허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었다. 검찰은 소재 불명인 측근을 제외한 참고인 10여명을 소환하고 주식과 관련한 계좌, 주식 주문 내용이 담긴 녹취파일 등을 분석한 결과 허 전 회장이 자금의 흐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같은 판단에 따라 최근 출국 금지 조치를 해제했고 허 전 회장은 지난 달 31일 발급받은 여권으로 지난 3일 뉴질랜드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발상 고액 세금 체납자의 여권 발행 거부 등 제재 규정은 없다. /김지율기자 dok2000@

ABC협회 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58 해질 14:24
해짐 19:11 맑음 00:11

복상하는 태풍

태풍의 간접 영향을 받아 흐리고 비가 오겠다.

지역별 날씨 (°C)

광주	흐리고비	23/27	보성	흐리고비	22/26
목포	흐리고비	22/26	순천	흐리고비	23/27
여수	흐리고비	23/25	영광	흐리고비	23/26
나주	흐리고비	23/27	진도	흐리고비	22/27
완도	흐리고비	23/27	전주	흐림	23/26
구례	흐리고비	22/27	군산	흐림	23/26
강진	흐리고비	22/26	남원	차차흐려져비	23/26
해남	흐리고비	22/27	홍산도	비	22/24
장성	흐리고비	22/26			



바다 날씨

지역	방향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남부	북~북동	0.5~1.0	북~북동	0.5~1.5
	남부	북~북동	1.0~2.0	북~북동	1.0~2.5
남해	남부	북동~동	1.5~2.5	북~북동	2.0~3.0
	서부	북동~동	2.0~3.0	북~북동	2.0~4.0
서부	남부	북동~동	2.0~3.0	북~북동	2.0~4.0
	남부	북동~동	2.0~3.0	북~북동	2.0~4.0

생활지수

식중독	주의
운동	10
빨래	20

주간 날씨

날씨	25(화)	26(수)	27(목)	28(금)	29(토)	30(일)	31(월)
날씨	☁	☀	☀	☀	☀	☀	☀
기온	21/25	22/28	22/29	22/29	22/30	21/30	22/29

태풍 ‘고니’ 간접 영향권

내일까지 강풍·비

24~25일 광주·전남은 복상하는 제15호 태풍 ‘고니(GONI)’의 간접 영향권에 들어 강풍을 동반한 비가 예상된다. 태풍은 화요일인 25일 오전 일본 규슈지역에 상륙한 뒤 소형태풍으로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월요일인 24일 광주·전남은 대체로 흐리다가 밤부터 태풍의 영향으로 비가 시작돼 25일 밤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23일 예보했다. 예상 강우량은 20~60mm. 지리산과 남

해안 등 일부 지역에는 50~100mm의 많은 비가 예상돼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가 필요하다. 복상하는 태풍 고니는 23일 오후 3시 현재 반경 330km의 강한 중형급 태풍으로, 일본 도쿄 남동쪽 해상에서 최대 풍속 40%, 시속 10km 속도로 북상 중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태풍은 화요일인 25일 오전 일본 규슈지역에 상륙한 뒤 소형태풍으로 약화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경도로 유동적인 만큼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기용기자 pboxer@

전남, 치안센터 8곳 파출소 승격

치안 강화를 위해 전남 치안센터 8곳의 파출소 승격이 추진된다. 23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남에는 경찰서 21곳, 지구대 15곳, 파출소 188곳, 치안센터 132곳이 운영 중인데, 이들 치안센터 가운데 8곳(광양 3곳, 담양 3곳, 나주 1곳, 장흥 1곳)을 파출소로의 승격을 추진 중이다. 승격이 추진 중인 곳은 상주인구가 많지 않은 농촌이나 산골마을에 위치하고 있다. 농작물 절도 사건 등이 빈발하고 있지만 인원과 장비가 없어 치안

활동을 펼칠 수 없는 곳이다. 지난 4월 나주의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에 개소한 빛가람치안센터도 치안 수요가 많아 11명이 24시간 교대 근무하는 파출소 형태로 운영 중이다. 경찰은 이들 지역에서는 독자적인 치안 활동이 시급하다고 판단, 인원을 늘리고 순찰차를 투입해 일단 준(準)파출소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치안센터는 주간에 1~2명의 인원이 근무하며 치안이 아닌 주민 민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인원과 장비가 없어 치안

10여년을 고객과 함께한 전국1위 골프멤버십
전국 명문 300여개 골프장 무기명4인 주중, 주말

정회원 선불 특별회원 모집
호남, 제주 그린피 전액지원

상품안내				
구분	다이렉트1	다이렉트2	퍼펙트(법인)	프라임
총액	3600	1050	1600	950
통장보증	3000			
입회금	600	1050	1600	950
이용기간	5년 180회	5년 180회	5년 280회	5년 140회
이용횟수	월4회 년36회	월4회 년36회	월6회 년56회	월3회 년28회
회원등재	본인+무기명	본인+무기명	본인+무기명3	본인+무기명

※ 주중/주말 사용 가능(자세한 내용은 상담바랍니다)

선불 특별회원 가입안내

- 전국 골프장 주중, 주말 정회원 대우 그린피 혜택
- 호남, 제주 그린피 전액 지원
- 법인 무기명 4인 사용 가능
- 동남아, 중국 무료라운딩(동절기)
- 년2회 국내 및 해외 회원 초청행사

(주)리즈골프 상담문의: (062)371-1800

리즈골프는 2002년도에 설립되어 업계 최다수의 회원님들을 서비스 관리해 드리고 있는 고객만족도 최고의 회사입니다.